십일조 부담, 어째야 하나?

(말라기 3:1~18)

7.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8.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9.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십일조 부담, 어째야 하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십일조 부담, 어째야 하나?'
본문은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십일조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생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십일조의 중요성에 대한 지침이 나타납니다. 다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십일조가 부담스러운 규정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푼이 아쉬운 삶의 현장에서 십일조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일조가 논란의 대상이 될 때마다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보자면 십일조는 안내도 문제이고 내도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십일조 생활을 잘해도 외식에 치우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누가복음 18장 11~12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외식하는 십일조는 신앙적 교만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십일조 규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십일조는 오히려 신앙의 독

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막연하게 십일조 생활을 해나갑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습관적으로 십일조를 냅니다. 안 내면 큰일 날 것 같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닥칠 것을 두려워하여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목사님의 눈을 의식해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부담을 느끼면서 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십일조를 낼지 말지 고민하기 전에 십일조의 진정한 의미부터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왜 십일조를 규정하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일조의 정신을 모르면 바른 십일조 생활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일조를 해도 외식에 빠진다면 신앙의 유익보다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십일조가 말라기서의 전체 맥락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말라기서는 당시의 선민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희박한 상태에 있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일조에 대한 언급 또한 이러한 신앙상태에 놓인 선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잘못된 십일조 생활을 지적함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 선민들의 실태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2장 17절과 오늘 13절 이하를 보면 같은 주제가 나타납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자기들의 유익을 얻는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이들을 용인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민들은 이러한 현실을 보며 하나님의 정의나 살아계심을 막연하고 고리타분한 옛날이야기 정도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염두에 두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회의적인 신앙생활이 사회전반에 고착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에서 도둑질이 언급됩니다. 특히 지난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던 “있다는 느낌”으로써의 존재감과 도둑질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마음가짐은 십일조 정신이 준수되지 않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존재감이란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의식과 느낌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많은 대상들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존재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오직 마음에 담긴 것들만을 의식하고 관계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 도둑질이 성립하는 상황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둑질은 대상에 대한 존재감을 강하게 느끼지만 주인의 존재감이 희박해질 때에 나타납니다. 주변에 많은 대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드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의 주인이 있다는 느낌이 희박하거나 없을 때에 도둑질은 발생합니다.
원죄의 본질 또한 도둑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사탄이 끼어서 한 일은 바로 선악과를 의식하게 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존재감을 약화시킨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먼저 선악과가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의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의식은 희박하게하고 없애버립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도둑질하여 따먹게 되었습니다.

원죄가 도둑질이었기에 원죄 이후에 나타난 모든 행동들 또한 도둑질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우리 마음에서 희박하게 하거나 없애버린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예로 들어봅니다. 부부관계는 곧 아내가 남편을 마주하고 남편이 아내를 마주하는 관계입니다. 이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또한 남편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부부관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곧바로 아내를 담고 남편을 담습니다. 이것이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무엇과 관계할지라도 주인이신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다 도둑질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둑질이란 대상에 대한 존재감은 강하게 느끼지만 주인에 대한 존재감은 느끼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정말로 나의 소유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주머니에 있다고 해서 나의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주어진 업무를 한다고 해서 나의 업무가 아닙니다. 직장과 업무 또한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매뉴얼을 따르거나 이제까지의 경험을 따라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존재감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도둑질에 불과합니다.

도둑질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자각과 느낌이 없다면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를 도둑질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면 하나님의 물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슈퍼에서 돈 주고 물을 사서 마신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원죄의 현실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에 선민들의 문제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특별히 십일조를 소재로 삼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선민들은 삼라만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십일조 생활만이 잘못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숨 쉬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도둑질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자각이 없이 하는 모든 행동은 도둑질이

기 때문입니다.
특히 십일조를 언급한 이유는 성전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일조는 성전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방편이었습니다.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십일조에 들어있는 정신에 주목합니다. 그간 우리가 십일조의 결과에만 주목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근거하여 십일조를 복 받기 위한 수단과 투자로 여깁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10억을 갖고 싶으면 먼저 1억을 십일조로 투자하라는 망발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문 말씀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주목하고 있는 십일조의 정신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십일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방편입니다. 이들은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존재 이유는 선민들이 삶에서 성전을 생활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선민들도 농사를 지어야 하고 장사도 해야 하고 자녀도 키워야 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삶에는 원죄로 인한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이유는 도둑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인간의 삶이란 하나님이 계시다는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밀착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의식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을 의식하며 우선시합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돈 문제의 주인으로 의식하기 보다는 돈 문제에 마음이 정복당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삶은 도둑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에 성전 생활화가 요구되었고 이를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존재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은 레위인들의 도움을 받아 매일 아침저녁으로 일 년 된 어린 양을 죽여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어느 곳에서 살든지 지금도 예루살렘성전에서는 나를 위해 어린양이 죽어 번제로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대신 세상을 의식한 마음이 어린 양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삶도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삶 전체를 책임지시고 10~12절에서 약속하신대로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요구를 위해 성전은 필요했으며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봉사하는 레위인이 필요했습니다. 이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세상에서의 직업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선민이라면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지 성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전을 기억한다는 것은 곧 이 세상을 우선적으로 의식하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의식하는 상태로 새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렇게 선민들을 복된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 준비된 곳이 성전이었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십일조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으심을 우선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십일조는 외식이 됩니다. 십일조는 규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있으심을 우선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느끼는 감사함의 신앙고백입니다.

물론 문제는 선민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제사장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선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 스스로가 세상을 우선시하여 의식하는 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었고 결국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의 권한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말해주지만 그 목적은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선민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십일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십일조의 정신은 평생 직업도 없이 성전에서 선민들을 위해 봉사하던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감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선민들이 하나님이 있으심을 우선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침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들의 수입을 위해 제사를 이용하게 되면서 십일조의 정신은 사라져버렸습니다. 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좋은 제물이 있으면 착복하고 나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십일조의 정신은 선민들에게만 강요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선민들 쌍방에서 지켜질 때에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의식하는 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예배당과 성도의 부흥만 외친다면 외식하는 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십일조를 많이 하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소리만 하고 있다면 결코 성도들의 신앙고백으로써의 십일조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축복의 약속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있으심을 세상보다도 우선시해야 함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축복은 목사님이 설교하

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축복을 입에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자리로 교인들을 인도하면 될 뿐입니다.
저도 한 때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축복을 이야기해야만 성도들이 좋아하고 헌금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축복이 아닌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실제 삶에서 성도 개인이 하나님이 있으심을 먼저 자각하고 느끼게 되면 십일조의 정신 또한 지켜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심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십일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십일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욕구가 전혀 없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라기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감과 십일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애타게 붙잡고자 한 하나님의 존재감에 대한 강렬한 욕구 또한 우리의 욕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이 욕구가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일조 정신에 입각해서 기도하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는 대로 십일조 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복음방송을 듣는 성도들이 출석하는 예배당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있으심을 우선적으로 자각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일조를 내는 일이 즐겁고 복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